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강철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1947년 6월 서울 생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0년)

수학과 미술의 접점인 건축과를 택하다

원래 초등학교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어 고등학교 시절 미술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림 그린다고 하면 굶어 죽는 것으로 표현 할 정도여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고교 시절 국어, 수학을 좀 했고 영어는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수학은 100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림 그리면 공해진다는 말에 놀라서 수학과 그림 잘 그리는 것이 매치되는 과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건축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제 주변에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저의 가족이나 주변에는 건축하는 사람은 없고 전자공학, 전기공학출신 같이 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건축과를 가겠다고 하니 부친께서 '건축은 전자공학같이 새로운 학문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 있는 학문이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건축을 전공할 것 같습니다. 상과대학이나 이런 분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장교제대 후 종합건축에 첫발을 디디다

1970년에 대학 졸업 후 군대를 갔는데 ROTC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철책선 소대장까지 했고 당시 저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무려 부하 병사들이 41명이나 되었으니까요.

72년 6월에 제대후 취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날 모교 김정수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다짜고짜 종합건축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더니 웃기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7월4일에 종합건축 이승우 선생을 찾아가서 꾸벅 절하고 김정수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지요. 이승우 선생도 저를 쓱 한번 훑어보시더니 '내일부터 출근해' 하셨습니다. 두 달 되던 날 봉급이 처음 나왔는데, 딱 일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달러당 환율이 사백 대 일일 때이니 25\$인 셈입니다.

군 제대 당시에 사만 오천 원 받았는데, 건축사사무소 급료 적은 것은 각오는 하고 있었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분만 늦게 출근해도 다 쳐다보는 종합건축에서 6년 6개월을 다니다

그리고 당시 종합건축의 분위기가 제게는 잘 맞았습니다. 김수근 선생의 공간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저 연필로 도면 그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정도라 오분만 늦게 출근해도 모두 쳐다보고 하니 살금살금 자리에 가서 자리에 앉는 거지요.

그 당시 종합건축은 서울 시내에서 최고의 사무소로 인정받고 있었고 직원은 12명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종합건축은 78년 1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6년 6개월 다녔는데, 종합건

축에서 이승우 선생에게서 배운 것은 봉급이 밀린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봉급이 밀려본 적이 없는 사무소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하니 이승우 선생이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사람의 특징으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격은 호랑이 같지만 심지어 땅까지 팔아서 직원봉급을 준 것으로 지킬 것은 꼭 지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봉급을 하루도 제 때에 못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운영하면서 크게 배운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점이 바로 직원이 회사에 느끼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들로는 윤석우 차프, 남일(전건교부국장), 전봉수, 류춘수, 김동현(김병룡), 표상권, 배영찬, 김태인 선생님들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셋다 판도 벌리고 하는 낭만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종합에서 치러냈던 일들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창문도면, 청와대 수영장·영빈관, 서울서부역사, 미주백화점 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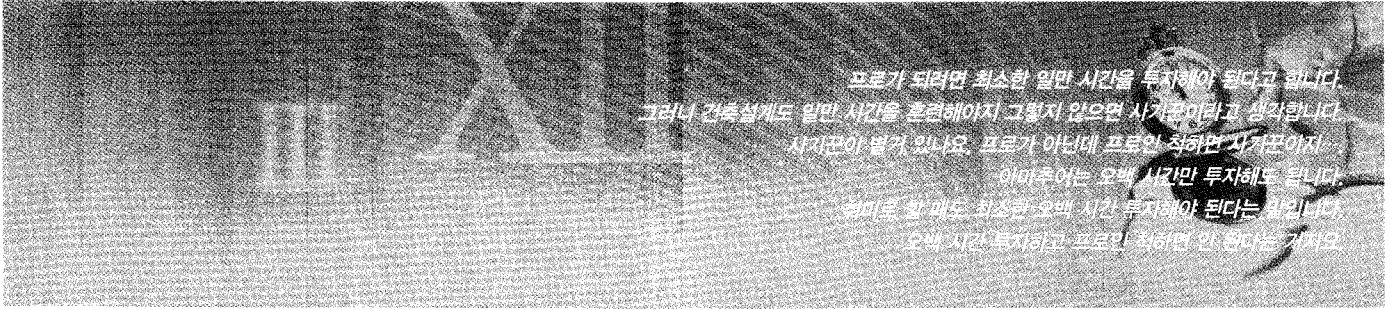
김중성 교수의 귀국소식을 듣고 동우건축으로 옮기다

그러던 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가가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김중성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종합건축에 신물도 낫고 옮기고 싶고, 나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생각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외국 가서 경험 쌓고 싶었는데 영어실력도 짧고, 실력도 없고 해서 그런 꿈을 접고 김 교수가 계신 대우그룹 산하의 동우건축에 가려고 한 거지요.

아침 8시출근해서 일하면, 오후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집중이 되었다 후배가 먼저 입사하고 저도 응모하라고 해서 동우건축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우건축 가기 전에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백지수표 주듯이 급료 많이 줄테니까 오라고 했지만 생각이 딴 데에 있어서 동우로 79년 1월에 간 겁니다. 동우건축에 갔더니 출근시간이 오전 8시예요. 늘 9시30분에 출근하던 사람이 오전 일찍 출근하니 오전에 일하면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도 그래서 오전 8시 출근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스타일이 아침 형 인간인 것 같고 저녁 형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전8시 출근해서 12시까지 4시간 일하면 일을 많이 합니다. 종합건축 다닐 때 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녁때도 일하고 싶어 일했습니다.



프로그 되려면 최소한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설계도 일만 시간을 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별거 있나요. 프로그 아닌데 프로인 척하면 사기꾼이지... 아마추어는 오백 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취미로 할 때도 최소한 오백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백 시간 투자하고 프로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미국식의 새로운 디테일에 눈뜨게 되다

동우건축에 만 2년 간 있었는데 참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디테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벽돌디테일, 정교한 철골디테일, 창호 새시 부차부분 디테일, 건식벽의 디테일 등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김중성 교수께서 종이를 깔아놓고 스케치하는데 실제로 디멘션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미국 III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교수 손에 흉터가 많이 있어 물으니, 주니어 시절 모형 만들 때 실수로 칼로 베인 자국들 이라고 해서 무척 감복했습니다.

진정한 프로그 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프로그 되려면 최소한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축설계도 일만 시간을 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별거 있나요, 프로그 아닌데 프로인 척하면 사기꾼이지...

아마추어는 오백 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취미로 할 때도 최소한 오백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백 시간 투자하고 프로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우건축에 2년간 있어보니 건방지게도 내 건축 인생의 삼분지 이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종합건축에서 건축의 기초를 배웠다면 동우건축에서는 어떻게 실무를 해야 하는지 건축의 진수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에서 건축을 배운 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건축설계라고 하면 그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걸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 실제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부딪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건축가도 예술가라는 바탕으로 그런 것만 배웠지 실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많은 경험과 건축자재 등이 실제로 연결되어 해결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상력과 현실이 연결 될 만한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동우건축에서 2년간의 경험을 끝으로 나의 사무실을 차리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2년이 지나니, 보헤미안 기질이 있는지 더 이상 있을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사 시험에도 합격(79년)이 되고 하는 것을 계기로 사무소를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춘천에 한림대학이 생길 무렵입니다. 대우그룹 일을 할 당시 제가 담당자로 만났던 분이 한림대학 설립을 추진하셔서 저더러 춘천에 가서 같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34살일 때인데, 김중성 교수에게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시의 동우건축은 대우그룹 일 만으로도 벅찰 때라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다

또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당시에는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못 쓸 형편이라 서울건축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 11월 29일 사무소를 차리면서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제가 대신 쓰게 된 거지요. 외부사람들은 헛갈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사무실 위치는 청와대 바로 옆 동네에 얻게 되었는데, 그 곳은 우경국 선생이 나중에 그 자리를 사서 헐고 여운헌이라는 명작을 다시 지은 곳입니다. 처음에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소장, 경리 그리고 직원 3명이었습니다.

첫 일거리가 한림대학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동우건축에서 김 교수에게 배운 스타일 그대로 작업했습니다. 첫 일부터 순탄하게 풀린 거지요.

저의 건축인생에 세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은사이신 김경수 선생, 종합건축의 이승우 선생, 그리고 동우건축의 김중성 선생입니다.

현재 세 분 중 두 분은 작고하시고 김중성 교수님만 남아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은사로는 한림대학 설립자 윤덕선 박사를 꼽을 수 있겠지요. 서른세 살 먹은 저에게 그렇게 큰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새삼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건축에 재직 시 내가 한 일은 옥포조선 배후단지 일로 무려 50여 개의 건물 총괄책임자였다

서울건축(옛 동우건축)에 있을 때 대우가 옥포조선 인수 당시라 배후단지를 맡아서 했습니다. 아파트, 학교, 사무실, 병원 등 건물만 50개 이상 되었는데, 제가 총괄을 맡아 했습니다. 다음에 범양상선 사옥을 맡아서 했지요. 이 년 만에 제 밑에 있는 직원이 5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건축 전 직원이 이백 명일 때입니다. 그 당시 있던 직원이 현재 동우건축에도 있습니다.

그때 독립한 후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설계가 있었는데 제가 김중성 교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서울건축이름으로 하고 동우에서 해도 되겠냐고 말이지요. 수락하셔서 5명의 직원을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8천 평이고, 운송계 당선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김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서울건축으로도 외부경기 설계 참여 후 당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캠퍼스 플래닝을 많이 하게 되다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설계 이후로 캠퍼스플래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 호서대, 숙명여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홍익대, 서울대 연구소 몇 개, 서울법대, 연대 문운회관, 상경대학 의과대학 병원, 세브란스 암센터 등의 일들을 했습니다.

아름리에 사무소 운영하는 분들께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려면 아주 직게 하고, 프리덕션은 큰 회사에 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디자인만 전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살길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협업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정말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주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거나 못한다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되돌고 싶고
 그렇다면 건축계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든지 자기 회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연세대학교 플래닝도 프로포잘 내서 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는 제가 연세대 출신이라고 뻥 써서 됐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일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봉급으로 결혼이 힘들어 31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다

제가 젊었을 때에 건축사사무소 봉급 가지고는 결혼하기 힘들어 31살
 되도록 결혼 못 했습니다. 부친이 서울공대 동창회 회장 하실 때 훈기 도
 달한 동기 자녀들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 데 마침 윤장섭 교수님께서 적
 어 내셔서 그 분 딸을 알게 되어 맞선보고 결혼했습니다.

윤장섭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20년 전에 은퇴하시고 우리 동
 우건축에 고문으로 있으시면서 건축계의 외풍을 말없이 막아 주셨다고 생
 각합니다. 흔히 교수 사회에서는 건축사들을 좀 무시내지는 질시하는 경
 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친은 너무 엄격하시고 해서 오히려 장인이신 윤 교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건축은 지어진지 10년 후에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연세대 내에 일백년 전에 러시아 풍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뒷산에
 있는 형편 없는 돌들을 그대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냄새나고 허름한 건물
 인데 오히려 연세대 학생들은 거기서 수업 받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
 다. 바로 전통과 시간이 배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짓고
 나서 10년 쯤 후에 승부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로 최선을
 다해 짓는 것에 많은 건축가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물
 론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최선을
 다한 건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
 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것이 호서대학교 건물들인데 운동 싸구려 돌
 로 지었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쥐도 안 가져가는 싸구려인지 알지 못합
 니다. 공사비도 다른 학교 공사비의 절반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보수적인 건축이 된다는 말
 과도 조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칭찬받던 건축물들을 지금 다
 시 평가해보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쓰레기통 같이 변한 건물
 도 있습니다.

대조직이 아니면 경기설계 참여도 못하는 현실에 조직을 키우기로 하다
 대형조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는 90년 초에 왔습니다. 직원
 40명일 때인데 그냥 이대로 스튜디오 형태로 가느냐 마느냐 할 때입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일단 건축가라는 생각을 덮어버리자, 장사꾼이라는 말

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이 군대 일 들
 입니다. 군대 일 들은 건축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3-40명가지고 큰 경기설계에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 식으로는 조직도 문제고 빚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직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현상설계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일로 큰돈을 벌다

그럴 당시에 큼직한 군대 일을 해서 90년부터 5년 사이에 회사를 많이
 키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이 40-50억 정도의 설계비였으니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건축을 무시한 것이 지금 후회됩니다. 당시에는 아파트설
 계가 건축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지금 돌이
 켜 보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 한 일들이 아시아나 항공 격납고, 케
 이터링 건물, 홍익대학교 정문관, 세운상가재건축(2005년 당선) 등입니다.

여섯 번의 고속철역사경기에서 모두 이등을 하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일들 중에 뼈아픈 것은 고속철역사 설계경기에 6번이나 참여했는데 모
 두 다 떨어 진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중에 광명역사는 저희 계획안
 이 월등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이제는 건축설계만 해서는 안 되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털서비스 개념의 집단을 만들다

그래서 시공회사, 인테리어회사, 감리회사, 기계설비, 전기설비, 건물관
 리 등의 협력사들을 모두 연계해서 운영하면 건축주 만나 설계부터 시공
 등등 일사불란하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한 거죠. 일 하나로 일곱 개의 연관
 된 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위 토털 서비스 개념이지요.

이럴 경우 연관된 회사끼리의 전폭적인 협력이 최우선인데, 전체의 이
 익을 보기 전에 각자의 이익이 앞장서는 바람에 잘 안되더군요.

결국 이런 결정 후에 건설회사를 시작했는데 한동안 잘되었지만 1998
 년 이후 건설회사 일거리가 별로 없어 한개의 건설회사만 남겨두고 일부
 는 정리했습니다.

1996년경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바람에 토털
 서비스 사업의 추진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았어도 잘 되었을 텐
 데...현재 전체직원은 이백 명 정도인데 직속회사가 160명이고 라운드 테
 이블 연계회사가 30-40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들은 아파트, 박물관,
 오피스, 골프장, 리조트시설, 호텔, 병원 등입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뭐,
 가릴 틈이 있나요.

각 팀은 본부장 체제로 14본부로 되어 있고 한 본부에 20명 이상에서부
 터 2-3명의 구성으로 된 작은 본부도 있습니다.

인터뷰 후기

가끔 건축단체 일로 만나게 되면,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또 소규모사무실을 열심히 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비롯해 주변에 더 알려져 있다. 글 속에서 스스로 기탄없이 정사문임을 밝히는 동기가 놀랍다. 그런 한편 일만 시간의 몰타르 진정 프로건축가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동시에 밝히는 것 역시 이승남 같은 타자생활을 일찍 접고, 구단주가 떠났음을 과감하게 건축계에 선포한 것이다. 대부분 일거주총한 상태의 태도를 취하는 건축인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공개하게 스스로의 역할을 밝히는 이도 드물다. 다만 건축계에 산적한 여러 가지 공동의 고민을 해결하는 일들에도 힘을 쏟아 건축계가 현재보다 더 유쾌해지는 일들에서 그를 보기 바란다.

최동규 편집위원장

현재 사장은 서울건축에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프랑스 유학 다녀온 이용익 사장인데, 1994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교 GSD에 가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 과거에도 MIT에 1년간 직원을 몇 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내세울 점은 별로 없고 다만 조금 도덕적이라는 거지요. 일을 수주하기 위하여 비난받을 로비는 제가 천성적으로 못합니다. 명절 때 상식적인 인사치레는 합니다. 그러나 소위 돈 보따리 들고 다니는 짓은 못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디자인이 아직도 무척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 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의 눈높이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디자인이 강해지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이지요.

저희의 영업력은 솔직하게 말해서 대단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빛내서라도 먹고 살아왔지만 외국의 일류 사무소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소의 차세대 후계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영업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았는데, 자체 내부에서 유능한 후계자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익 사장이 잘하고 있고 본부장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삼세대 바통 터치 할 인제는 별 걱정 안 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예일 대학 나오고 건축사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있던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도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납니다.

큰 딸이 나이가 서른셋인데, 샌프란시스코 KM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하버드에 있는데 이삼년 있다가 동우건축에 다시 합류할 것입니다. MIT, 예일 등의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을 더 쳐주는 경향이 있더군요.

일생 살아오는 동안의 신조는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어른신 영향권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형제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죽는 날까지 설계를 하겠다

앞으로 희망은, 제가 아직도 30년은 더 일할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곧 백수(白壽)를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DNA가 있어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선 동우건축을 질적 양적으로 'BIG5'까지 올려놓고 싶습니다. 표면상 은퇴는 70세까지로 정해 놓고 죽는 날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의 재산을 쓸데없이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것이 아주 예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만 전념하면 아틀리에는 산다

아틀리에 사무소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려면 아주 작게 하고, 프로덕션은 큰 회사에 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디자인만 전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살길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협업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정말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주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거나 못한다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고 그렇다면 건축계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든지 자기 회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하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벌립니다. 제가 한참 일할 때, 돈 생각 없이 일할 때는 잘 벌리더니 막상 돈 벌 생각하니 잘 안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돈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도 건강도 생명도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니 스스로 자책은 하지말자

문제점은 우선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증폭 될 텐데 국민들이 가난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건축인들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자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축에 대한 업역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조경, 도시 등등 업역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싸다고 하는데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 싸 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싸 설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음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고담준론은 이론하는 분들만 말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건축가들이 미학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소일하지 말자는 거지요. 나쁜 것은 나쁜 거고 예쁜 것은 예쁘고 시각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데 그 이상 어렵게 말하지 말자는 거지요.

일만 시간의 물을 따라 진정한 프로가 되라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일만 시간의 물을 지켜 진정 전문가가 되라는 것 하구요. 하루 8시간씩 거의 10년이 채워져야 일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일만 시간은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